

◎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에 담긴 교훈을 찾아 봅시다.

학년

반, 이름

상길이와 박 서방

어느 마을에 ‘박상길’이라는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서 푸줏간을 하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젊은 양반 두 명이 나이 많은 백정 박상길의 푸줏간에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. 푸줏간에 들어서자마자 한 젊은 양반이 박상길에게 거만하게 말했습니다.

“상길아, 고기 한 근 다오.”

백정 박상길은 “네, 네, 그러지요.” 하며 고기를 한 근 베어서 주었습니다. 그런데 함께 고기를 사러 온 또 다른 젊은 양반은 아무리 백정이라지만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 박상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

“이보게 박 서방,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.”

백정 박상길은 “네, 네, 그렇게 합쇼.”라며 솜씨 좋게 고기 한 근을 듬뿍 잘라 주었습니다. 그런데 고기 한 근의 양이 먼저 고기를 샀던 양반의 고기보다 갑절은 되어 보였습니다. 이에 화가 난 젊은 양반이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.

“상길이 이놈! 똑같이 고기 한 근을 샀는데 어째서 이 사람의 것은 많고 내 것은 적으냐?”

그러자 백정 박상길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.

“네, 네, 그야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, 저 어른의 고기는 박 서방이 잘랐으니까요.”



Q 처음 고기를 사러온 젊은 양반은 푸줏간 백정을 어떻게 불렀나요?

Q 두 번째 고기를 사러온 젊은 양반은 푸줏간 백정을 어떻게 불렀나요?

Q 푸줏간 백정이 두 번째 고기를 사러온 젊은 양반에게 고기를 더 준 이유는 뭘까요?

Q 우리는 평소에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씨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할까요?